

한국 소설 중국어 번역서의 주변텍스트 조정 사례 비교 분석: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강경이(이화여자대학교)

1. 서론

특정 대상을 처음 마주할 때 먼저 접하는 이미지나 정보가 훨씬 선명하게 각인되는 현상을 심리학 용어로 ‘초두효과(primacy effect)’라고 한다. 첫 인상이 수용자의 판단에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영화나 공연에서 포스터에 제시된 문구와 디자인이 작품의 첫인상 형성에 일조하듯이, 책에서 독자들의 초두효과를 이끄는 핵심 요소는 바로 본텍스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텍스트(peritext)’들이다. ‘주변텍스트’는 주네트(Genette)가 제시한 ‘결텍스트(paratext)’의 한 유형이며, 제목, 표지, 띠지, 서문, 추천사, 헌사, 머리말, 후기 등 본텍스트와 동일한 물리적 위치에 종속적으로 배치된 텍스트를 말한다(Genette, 1997, p. 12).

주변텍스트는 책을 접한 독자들의 시선이 가장 직관적으로 닿는 관문이자 작품 세계로의 동참을 제안하는 유도장치다. 따라서 책을 제작, 기획하는 출판사들은 ‘주변텍스트’ 공간을 활용해 해당 작품의 가치나 홍보 전략을 최대한 압축해 보여준다. 이는 번역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출판사는 자국 독자들을 위해 선보이는 외국 작품의 특별성을 ‘주변텍스트’를 통해 효율적으로 구현하여 홍보 효과를 끌어올리고자 한다. 본텍스트에 대해서는

전문 번역가가 수행한 번역 결과를 교정, 편집하는 선에서 개입하게 되지만, 주변텍스트의 경우 출판사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설계한다. 다시 말해 주변텍스트는 출판 취지와 전략을 가장 선명하게 엿볼 수 있는 영역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번역서의 주변텍스트에 가시적으로 투영되는 출판사의 목소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도착어 문화권의 출판장 내에서 출판사는 번역 작품을 선정하고 번역 및 출판 과업을 전반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번역서의 현지 수용과 홍보까지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본고는 중국 대륙 출판사와 대만 출판사가 동일한 한국 문학 작품, 즉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출간하면서 현지 환경에 따라 주변텍스트를 각각 어떤 방향으로 기획하고 조정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번역서 주변텍스트의 유형과 기능

독자들은 대개 책의 본문을 ‘읽는’ 행위에 앞서 책의 표지나 권두를 훑어본다. 서점에서 독자들과 만나는 책은 저자가 쓴 원고에 출판사가 편집 디자인의 틀을 입혀 조형한 가공물이다(정민영, 2015, p. 30). 즉, 저자의 텍스트와 출판사가 만든 결텍스트가 결합한 형태라는 의미다. 정민영(2015)에 따르면 출판업계의 북디자인 관점에서 책은 앞표지, 앞날개, 책등, 뒤표지, 뒷날개로 구성되는 ‘표지’ 부분과 권두(약표제면, 표제면, 머리말, 차례), 본문(부, 장, 절), 권말(부록, 후주, 참고자료, 용어해설, 찾아보기, 간기면)로 나누는 ‘내지’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표지 전체와 내지의 권두, 권말이 결텍스트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텍스트는 책의 존재 이유를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해 보여주는 공간이자 편집자의 사고나 가치관, 구성력을 판단하는 요소다(정민영, 2015, p. 33). 엄인영과 김병진(2016)은 종이책의 결텍스트를 ‘언어적 형태’, ‘시각적 형태’, ‘공간적 형태’로 구분했다. 언어적 표현방식의 결텍스트는 책 제목, 목차, 서문, 에필로그, 저자, 출판사 이름, 추천인 소개 글, 띠지를 이용한 책의 광고 문구, 각주 등 독자를 책 안의 이야기로 끌어

들이는 언어적 요소들을 포함하며, 시각적 표현방식의 곁텍스트는 표지, 책 등, 띠지, 면지, 종이 두께/질감, 판형, 레이아웃, 여백, 자간, 행간, 서체, 텍스트 주변 삽화나 사진, 색채 등 독자에게 시각적인 경험과 감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엄인영과 김병진, 2016, p. 73). 특히 서점, 카페, 도서관, 복합공간 등 책이 놓이고 소비되는 장소나 맥락 요소들도 유형에 포함해 곁텍스트의 개념을 공간적 층위까지 확대한 점이 특이할 만하다.

한편 출판 현장에서 곁텍스트는 대부분 본문 텍스트와 물리적으로 일체화된 본문 외 텍스트들을 일컫는 것에 반해 문학 이론가인 주네트가 제시한 곁텍스트의 유형은 훨씬 포괄적인 범주를 아우른다. 주네트는 곁텍스트에 대해 “독자가 텍스트로 진입하는 문턱”이자 “본문을 에워싸고 그것을 연장” 하면서 “책의 형태로 수용되고 소비되는 것을 공고히 하는 텍스트 주변 요소들”(윤미선, 2020, p. 167; 지영래와 박선희, 2010, p. 247; Genette, 1997, p. 1)로 정의하며, ‘주변텍스트(peritexts)’를 포함한 ‘바깥텍스트(epitexts)’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여기서 ‘주변텍스트’는 앞서 언급했듯 본텍스트에 물리적으로 종속된 텍스트들이며, ‘바깥텍스트’는 출판사 홍보 자료, 작품 관련 저자 서신이나 인터뷰 기사, 서평, 독자평, 작품 비평 등 본텍스트 외부에 산재한 다양한 메타 텍스트들을 일컫는다(Genette, 1997, pp. 4-5). 이렇듯 ‘곁텍스트’는 특정 작품을 둘러싸며 존재하는 각종 언어 및 비언어 재료들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본고는 문학 작품 번역서의 지면 상에 본텍스트와 공재하는 ‘주변텍스트’들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인 바, 이후로는 ‘곁텍스트’와 구분하여 그 하위 범주인 ‘주변텍스트’라는 용어를 일괄 사용하기로 하겠다.

‘번역가’라는 발신 주체가 추가되는 ‘번역서’의 주변텍스트 범주에 관해서는 주네트의 유형을 이론적으로 확장한 박선희(2015)의 연구를 참고할 만 하다. 박선희(2015, p. 26)에 의하면 번역서의 곁텍스트 중 ‘주변텍스트’는 주로 편집자와 번역자의 목소리가 담기는 영역으로 발신자 기준에 따라 ‘저자 주변텍스트’(저자명, 제목, 부제, 헌사, 주석, 저자 서문 등), ‘편집자 주변텍스트’(판형, 등장인물 소개, 삽화, 사진, 표지/속표지 디자인 및 문고, 편집자 서문, 편집위원 명단, 시리즈명, 일러두기 등), ‘번역자 주변텍스트’(번역자명, 작품해설, 작가 연보, 번역자 헌사, 역주, 역자 서문 혹은 후기,

번역자 약력 등), ‘제삼자 주변텍스트’(추천 서문, 추천 문구, 작품 해설 등)로 구분이 가능하다(박선희, 2015, p. 29).

영미권에 출간된 중국문학 번역서들의 주변텍스트를 다각도로 분석한 저우즈춘(周子淳, 2022, p. 84)은 주변텍스트에 대해 “작가, 번역가, 출판사, 독자가 연결되는 유대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표지, 제본 형태, 서문, 역자 후기, 전문가 추천사, 등장인물표, 각주, 용어집 등을 주요 유형으로 꼽았다.

이처럼 번역서의 주변텍스트는 해외 독자들과의 접점에서 작품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일독할 만 하다는 기대를 열어주는 ‘서곡(序曲)’ 역할을 한다. 배칠러(Batchelor, 2018, p. 142)는 주변텍스트가 “텍스트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공된, 텍스트의 수용방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문”이라고 강조하며, 종이책을 넘어 전자책, 디지털, 미디어 맥락으로까지 확장 적용하고자 했다. 그는 전자책 분야에서 주변텍스트가 텍스트를 세상에 알리는 기능, 상업적으로 홍보하는 기능, 독서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 독자와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능, 작품 세계 제시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Batchelor, 2018, pp. 50-53). 또한 미디어 콘텐츠 장르에서는 작품을 알리는 지시적 기능, 외적으로 보기 좋게 꾸미는 장식적 기능, 작품의 장르를 특정하여 인식하도록 하는 분류적 기능, 작품과의 상호작용이나 작품에 대해 고찰하게 하는 메타상호적 기능, 작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자의 의도를 설명하는 정보적 기능, 특정한 이해와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해석적 기능, 이데올로기적 관점을 부각하거나 약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 작품의 가치나 의미를 평하는 평가적 기능, 사용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상업적 기능, 텍스트를 대하는 자세를 알려주는 교육적 기능 등을 언급했다(윤미선, 2020, p. 171; Batchelor, 2018, p. 160). 상이한 매체를 대상으로 거론하긴 했으나 주변텍스트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종이책에도 대부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문학 장르에 초점을 맞춘 연구 중에서는 코발라(Kovala, 1996, p. 134)가 문학 작품 주변텍스트의 기능을 작품의 식별(identification), 메타텍스트적 기능(metatextual function), 배치(placing), 배경 정보 제공(giving background information), 설명(illustration), 독자 참고(reference to reader), 광고(advertising), 미적 기능(artistical function), 법적 및 서지적 기능(legal/bibliographic functions)

아홉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저우즈춘은 “독자 흡수”, “작품의 품질 각인”, “문화 조절”, “이미지 재구성”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했으며(周子淳, 2022, p. 88), 마승혜(2019, p. 165)는 출판사가 자국 독자층의 구미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독자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경제적 기능, 원천문화의 정치·사회·문화적 맥락에 노출되지 않은 목표문화 독자에게 작품 해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적 기능, 독자의 읽기와 이해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술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종이책 형태 문학 작품 번역서의 주변텍스트 기능을 재구성해보면 크게 작품 정보 제공 기능, 해석 틀 구축 기능, 작품 가치 각인 기능, 미적 장식 기능, 문화 중재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작품 정보 제공 기능’이 제목, 작가, 역자, 출판사, 편집자, 판권 등 도서 연관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라면, ‘해석 틀 구축 기능’은 줄거리, 편집자평, 작가의 말, 역자 서문(혹은 후기), 일러두기 등을 통해 작품 주제를 암시하는 단서나 연관 배경정보 제공으로 독자들과 독서 방향을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작품 가치 각인 기능’은 해당 작품의 권위나 지위, 인기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 추천사, 판매 부수나 순위 정보, 수상 여부 등 작품의 질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이러한 기능을 한다. ‘미적 장식 기능’은 상품으로서의 외관 디자인과 시각적 매력을 집약해 독자들과의 시선을 끌어모으는 기능이다. 마지막으로 ‘문화 중재 기능’은 문화적 간극이나 이데올로기 차이 등을 적정선에서 조절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타 문화권 작품을 새롭게 구성해 이식하는 번역서 특성상 필요한 기능이다. 즉, 도착어권 독자들이 작품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거리감을 좁혀 접근이 용이하도록 돕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번역서에 대한 도착어 독자들과 독서 동기를 끌어올리고 상품 구매 효과를 창출하려면 주변텍스트의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이 충족되어 조화롭게 맞물려야 한다.

2.2 도착어 출판장에서의 번역서 주변텍스트 기획

출판계에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다. 번역서 출간 과정에도 단계마다 여러 주체가 개입되고, 저마다 권한

비중이나 역할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르페브르(Lefevre, 1992a/2017, Munday, 2023, p. 309에서 인용됨)는 문학 시스템 내에서 주류 시학의 일부를 결정하는 전문가 그룹(평론가, 심사자, 학자, 교사, 번역가), 문학 시스템 밖에서 이데올로기 일부분을 결정하는 후원가 그룹(특정 시대 권력을 행사하는 개인, 출판사, 미디어 등 특정 관계자 집단, 학술지/학술단체, 교육기관 등)이 문학 시스템 내 번역 활동에 영향력 혹은 통제력을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중 출판사는 번역 출간 작업의 착수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타임라인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번역서의 최종 상품화 전략을 확정하는 가장 주도적인 주체에 해당한다.

중국 인민문학출판사가 『해리포터』 시리즈를 출간했던 당시의 사례를 소개한 왕하이주와 왕홍타오(王海珠와 王洪濤, 2023, p. 61)는 출판사가 번역 기획 및 생산, 번역서 보급, 홍보 등을 위해 판권 에이전시, 원저자, 번역자, 서점, 도서유통업체, 독자 등 여러 행위자들과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방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강조했다. 송이귀(宋義國, 2024, p. 95)도 문화상품의 생산자이자 전파자인 출판사가 경제 자본, 문화 자본, 사회 자본을 보유한 막강한 주체임을 강조하며, 번역 출판 기획과 관리, 번역 품질 통제, 작품 마케팅 전략 수립, 유통 채널 선택, 현지 시장 독자와의 소통 등에서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출발어 문화권에서 원작의 주변텍스트가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간판 역할을 하듯, 번역서의 주변텍스트도 타 문화권에서 독자의 시선이 가장 먼저 닿는 일차적 관문이다. 그렇기에 작품의 현지 번역 출간,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주변텍스트 본연의 기능들이 잘 구현되도록, 현지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주변텍스트를 새롭게 구성하고 설계한다. 그런 점에서 주변텍스트는 도착어 출판사에 의해 가장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다시 쓰이는 텍스트 공간이다.

그렇기에 번역서의 주변텍스트는 원작 주변텍스트의 구성과 형태가 그대로 이식되기보다 출판사에 의해 현지 특색에 맞게 변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맥레이(McRae, 2012)는 역자, 편집자, 서평가가 주변텍스트를 통해 문학, 문화, 사회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달함으로써 독자들과 독서 방식과 해석 관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작의 이미지나 의의가 변형될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저우즈춘은 “주변텍스트 상에 개별 작품과 작가, 중국 문학에 대한 각 출판사, 편집자, 역자의 주관적 개입이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문학 작품이 번역을 거쳐 출발어 환경에서 도착어 환경으로 진입할 때 불가피하게 굴절이 발생”한다고 보았다(周子淳, 2022, p. 89). 마오원권 등(毛文俊 등, 2023)은 중국 국영 출판사, 미국 내 대학 출판사, 미국 일반 상업 출판사에서 각각 출간한 루쉰 소설집 영역본 세 가지 버전의 주변텍스트 구성 전략을 비교함으로써 주변텍스트가 “출판사의 개입이 직관적으로 구현되는 공간”이자 “목표 문화권 출판사가 해당 번역 문학을 해석하는 하나의 주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우로와 저우이(邵璐와 周以, 2022)는 위화 소설 번역서에 대한 핑귄 랜덤하우스의 주변텍스트 이미지 구축 전략에 대해 다룬다. 해당 연구에서는 출판사 측이 주변텍스트 기획에 있어서 동양적 요소를 부각하는 타자화 전략으로 독자들의 호기심과 구매욕을 자극함과 동시에 미학적 요소의 공통성을 강조하며 번역 문학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고자 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연구 중에서는 김순미(2013)가 『위대한 캐츠비』 번역서 분석을 통해 결텍스트가 출판사의 차별화된 번역과 기획 전략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으며, 김순영(2019)은 추리소설 『X의 비극』 영한번역본의 결텍스트들을 비교하여 출판사마다 원문에 포함되었던 결텍스트를 유지, 생략,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 다른 전략을 구사하며, 출판사가 기획한 결텍스트 구성이 독자들의 책 선택과 읽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지영(2016)은 위화의 『허삼관매혈기』 중문본, 한역본, 영역본 결텍스트 내러티브가 각기 상이하게 리플레이밍되는 현상을 포착하며 동일한 문학 작품이어도 문화권마다 독자들에게 제시되는 해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비록 상기 연구들이 ‘결텍스트’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하긴 했지만 주변텍스트가 결텍스트의 부분집합임을 고려할 때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역서의 주변텍스트에는 외국의 문학 작품을 도착어 문화권에 유통 및 홍보하기 위해 출판사가 자체적으로 추구하는 기획 의도와 홍보의 소구점이 외현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는 출판사의 기본 성향은 물론 사회적 제도나 통념, 도착어 출판장의 출간 경향, 상업적 가치, 독자 취향 및 수요와

도 연동된다. 그런 점에서 동일한 소설의 번역서를 둘러싼 여러 도착어 문화권의 주변텍스트들을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문화권마다 작품의 어떤 측면을 주목하고 강조하는지, 해석의 방향이 어떻게 갈리는지 파악할 수 있다.

3. 사례 비교 분석

3.1. 분석 개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이 남긴 상흔을 세 여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장편소설이다. 작품의 이야기는 작중 화자 ‘나’이자 소설가인 경하가 한겨울에 손가락 절단 사고를 당한 친구 인선의 부탁으로 제주도 집에 방치된 새를 구하기 위해 내려가면서 시작된다. 경하가 폭설을 뚫고 어렵사리 제주 산간의 집을 찾아가는 동안 회고하는 과거 인선과의 대화, 집안 곳곳에 남아 있는 아픈 역사의 흔적들을 매개로 인선 어머니 정심이 겪었던 내밀한 고통을 공유, 애도하는 것이 작품의 주요 열개다. 2024년 10월 10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작품에 대해 한림원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호평한 바 있는데, 『작별하지 않는다』도 그에 해당하는 작품 중 하나다. 소설은 한때 ‘폭동’이라고 명명되며 담론화조차 허용되지 않았던 국가 폭력의 참상을 상기시키고, 뼈아픈 현대사 속에 희생되었거나 여전히 내면에 트라우마를 박제한 채 살아가는 개인들을 보듬는다. 이 작품은 현재 고통을 통과하는 중인 두 인물, 즉 전작의 후유증으로 악몽과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경하, 손가락 절단 사고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인선을 따라 4·3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엄마 정심의 가족사와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추적하며 ‘역사적 고통’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에 대해 오태호(2022, p. 22)는 “제주도 4·3 항쟁의 역사적 진실을 화자로 하여금 추체험하도록 이끄는 애도의 서사”라고 했으며, 김영찬(2024, p. 83)은 “4·3에 대한 충실한 재현”보다 “‘나’가 겪는 신체적, 심리적 고통과 4·3의 고통스런 기억을 내부화하는 과정의 고통에 대한 묘사 쪽으로 훨씬

더 기울어져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현대사의 특정 사건에 근간을 두고 있는 이 작품이 해외에서도 반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지점 때문일 것이다. 집단의 폭력성과 연약한 인간의 고통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작가 특유의 세밀하고 예술적인 문장으로 눌러 담았기에 역사적 배경이 제각각인 여러 나라의 독자들에게도 인류애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각 언어권 출판사마다 실물 도서로 가공하는 형태나 전략, 번역본 주변텍스트의 구성 양상은 다르다.

중화권에서만 봐도 대만에서는 2023년 7월에 아조트 사(AZOTH Books, 漫遊者文化)가 『永不告別(영원히 고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는 지우저우(九州) 출판사가 2023년 11월에 『不做告別(고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각각 상이한 표지를 적용해 시중에 선보였다. 중국과 대만은 중국 공산당과의 국공내전(內戰)에 패한 국민당이 1949년 12월 중국 본토를 떠나 대만으로 정부를 옮긴 이래 단절과 대립 국면이 이어지며 서로 다른 정치 노선과 경제, 사회적 행보를 유지해오고 있다. 중국은 이른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견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민주주의 정치, 경제 및 법률 제도를 따르고 있다. 공통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정치, 사회적 배경과 지역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작동되는 출판 시스템과 현지 독자층 성향, 출판사의 기획 방향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리우샨샨(劉姍姍, 2024, p. 150)의 연구에 실린 『작별하지 않는다』의 중국어 번역자 루홍진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대만 지역에서는 외국 소설 출판 시 외부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로 번역문에 대한 삭제나 생략이 많지 않은” 반면 “대륙의 경우 심사 제도나 정치적인 문제로 일부분 내용을 수정하거나 간략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 바 있으며, “실제 대만 번역가가 번역한 텍스트가 중국 대륙에서 출판되면서 대폭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작별하지 않는다』 중국어판과 대만어판의 주변텍스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작품 수용 지형을 고려한 도서 제작 주체의 기획과 홍보 방향 차이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작품의 경우 중국과 대만의 출판사나 출판 시기는 다르지만, 판권 에이전시와 번역가¹⁾, 번역 결과물이

동일하다. 즉, 중국에서 출간된 번역서가 기존의 대만 출판 버전을 기반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러한 점에서 도서의 최종 가공 방식에 대한 두 제작 주체의 기획관이 확연히 갈리는 부분들을 관찰하기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본고는 전술한 번역서 주변텍스트의 기능들과 연계하여 ‘정보 구성 및 배치’, ‘작품 서사 프레임 설정’, ‘문화 중개 및 조절’ 세 가지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 출판사가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의 주변텍스트를 생성, 구현하는 데 있어 어떤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지 비교 분석했다.

표 1
주변텍스트 구현 방식 분석 기준

	기준 항목	분석 내용
1	정보 구성 및 배치	• 본텍스트 주변의 물리적 공간이 어떤 정보들로, 어떻게 채워졌는가?
2	작품 서사 프레임 설정	• 작품의 내용이나 서사를 전달함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가? • 독자들을 위한 해석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언어적,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출하고 있는가?
3	문화 중개 및 조절	• 문화적 간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도착어 독자의 이해나 수용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중개하고 조절하는가?

‘정보 구성 및 배치’ 항목에서는 원작의 번역본 외에 출판사가 부수적으로 추가한 주변텍스트가 어떤 정보 위주로 구성되었는지 분석했다. ‘작품 서사 프레임 설정’ 항목은 주변텍스트를 통해 출판사가 작품 내용이나 서사 전달, 작품 해석 방향 설정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피고자 했다. ‘문화 중개 및 조절’ 항목에서는 문화적 간극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도착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중개, 조절하

- 1) 본 작품의 번역자는 대만 출신인 루홍진이며, 번역자로는 ‘盧鴻金’, 간체자로는 ‘卢鸿金’으로 표기된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외에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 김영하의 『살인자의 기억법』, 『빛의 제국』, 『검은꽃』 등도 중국어로 옮겼다.

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3.2 『작별하지 않는다』 대만판, 중국판 주변텍스트 분석 결과

3.2.1 정보 구성 및 배치

도서의 제한된 지면상에 어떤 정보를 어떤 구성으로 배치하느냐는 전적으로 출판사의 결정에 달려있다. 따라서 주변텍스트에 담긴 정보에 주목하면 출판 주체가 해당 작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부각하려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국 출판사와 대만, 중국 출판사가 본문 텍스트 외에 도서 내 물리적 공간을 활용해 부차적으로 실은 주변텍스트 유형과 정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주변텍스트 공간별 구성 내용(2021년 초판 기준)

공간	한국 ST	대만 TTT	중국 CTT
앞 표지	북킷(덧표지) 無	북킷+표지	북킷+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작가명 • 출판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한글 포함) • 작가명/번역가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한글 포함) • 작가명/번역가명 • 출판사명
뒤 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 속 구절 • 신형철 (문학평론가) 추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인터뷰 인용 • 작품 줄거리 • 작가의 문체 특징 • 출판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인터뷰 인용 • 작품 줄거리 •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사 • 르클레지오(노벨 문학상 수상자) 추천사 • 대만본 추천사 일부
책 날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소개 • 출판사에서 펴낸 작가의 타 작품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소개 • 번역가 소개 • 작가의 타 번역서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소개 • 번역가 소개
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수상 성과 • 작가의 말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수상 이력 • 작품 한 줄 요약 • 한국 내 도서 순위, 문학상 수상 이력 • 작가 인터뷰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가 수상 이력 • 작품 한 줄 요약 • 한국 내 문학상 수상 심사평 • 작가 인터뷰 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작가 추천사 일부 인용 • 4.3 사건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 속 구절
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례 • 작가 주 • 작가의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형철 추천사 • 한국 현지 독자평 • 대만 작가 평샤오위 추천사 • 목차 • 작가의 말 • 각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차 • 작가의 말 • 각주

한국어 원서(이하 ST)의 주변텍스트는 앞표지의 제목과 작가명, 출판사명, 뒤표지의 소설 속 구절 인용, 문학평론가 추천사, 책날개의 작가 소개, 작가의 타 작품 목록, 띠지의 홍보 문구, 내지 부분의 목차, 작가 주(집필 시 참고자료), 작가의 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대만어 번역서인 TTT(이하 TTT)는 앞뒤 표지에 번역 제목, 작가명, 번역가명, 작가 인터뷰 인용, 작품 줄거리, 작가의 문체 특징과 메시지 요약, 출판사명을 배치하고, 책날개에는 작가 소개, 번역가 소개, 작가의 타 번역서 목록을, 띠지에는 수상 이력, 작가 인터뷰, 추천사, 출판사 한 줄 평 등을 실었으며, 내지에는 ST의 문학평론가 추천사 번역문, 한국 현지 독자평 번역문, 대만 내 영화평론가이자 작가인 평샤오위(彭紹宇)의 추천사, 목차, 작가의 말 번역문, 각주 등을 추가했다. 중국어 번역서인 CTT(이하 CTT)도 앞뒤 표지와 책날개에는 제목, 작가명, 번역가명, 출판사명, 작가 인터뷰 인용, 작품 줄거리, 현지 및 세계 저명인사의 추천 글, 작가 소개, 번역가 소개를 게재하고, 띠지에는 수상 이력, 문학상 심사평, 작가 인터뷰 등을, 내지에는 목차, 작가의 말 번역문, 각주 등을 추가했다. 한눈에 봐도 대만과 중국 번역서 모두 한국어 원서에 비해 주변텍스트 형태로 실린 정보량과 밀도가 확연히 높아지고 구성 항목도 다양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변텍스트 구성 상의 변화가 비교적 큰 뒤표지 정보들을 살펴보면 두 번역서 모두 작품 줄거리 외에 작가 인터뷰나 유명 인사 추천사, 수상 정보, 판매량 정보 등을 게시해 독자들이 작품 선정 시 참고할 만한 근거들을 충분히 제공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만 TTT는 “가장 냉철한 문자로

가장 뜨거운 감정을 묘사한다”라거나 “상징, 은유, 대비를 통해 허구와 사실이 교차하는 서사 방식으로 잔혹한 역사의 상흔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인류애를 그려낸다”와 같이 한강 작가의 문체와 주제의식에 관한 메타담론을 추가한 반면, CTT는 대외적으로 권위 있는 유명 인사, 즉 한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작가 르클레지오의 추천사를 추가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가와 작품의 명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두 번역서 모두 띠지를 정보 제공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 한데, 책의 표지나 재킷 또는 슬립케이스(slipcase)에 띠 형태로 두르는 종이인 ‘띠지’는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마케팅의 영역을 넘어 표지 디자인의 일부로 여겨지는 추세다(김정현과 서혜옥, 2015, p. 128). 관련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띠지를 선호하지 않지만(김정현과 김준교, 2015, p. 125) 한국과 중국에서는 띠지에 대한 선호도와 수용도가 높은 데다 실제 책 구매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출판사에서도 책의 정보를 담아 홍보하는 마케팅 도구로 즐겨 사용한다고 보고된다(김정현과 서혜옥, 2015, p. 134; 종소함과 이해원 2019, p. 75).

출간 초판 기준 ST의 띠지를 살펴보면 앞면에는 흰색 바탕에 “부커상 이후 5년, 한강 소설이 도달한 곳!”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는 작가의 말 인용구가 적혀 있고,²⁾ 뒷면에는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정말 헤어진 건 아니야, 아직은”이라는 본문 발췌 구절이 실려 있었다. 짧고 압축적인 문장을 중간에 배치하고 좌우 상하에 여백을 충분히 줌으로써 특정 메시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TTT와 CTT의 띠지 상에는 작가의 국제상 수상 이력, 출판사

2) 본고의 분석대상은 연구가 시작된 2024년 초에 확보한 도서들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전에 출간된 원서와 번역서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상 전 초판의 한국어 원작의 띠지 앞면을 살펴보면 “부커상 이후 5년, 한강 소설이 도달한 곳!”이라는 문구와 “이것이 지극한 사랑에 대한 소설이기를 빈다”는 작가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다. 이후 2023년에는 “20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 문학상 수상”이라는 문구로 수정되었다가 2024년 10월 10일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에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문구로 대체되었고, 띠지 하단에 위치하던 작가의 말 부분은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며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로 변경되었다.

소년이 온다』와의 비교, 절단된 손가락의 환지통과 제주의 폭설 등 상징적 비유에 대한 해석 등 다각적인 측면의 정보를 제시한다.

이처럼 원작에 비해 번역서의 주변텍스트 정보 밀도가 확연히 증가하는 이유는 도착어권 현지 독자와 타국 작가 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중개에 나서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지명도를 지닌 작가가 아닌 이상 출판사 입장에서는 독자들에게 작가와 작품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구매와 독서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번역서라면 문화적 배경이 다른 타국의 작가에 의해 쓰인 작품이므로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독자의 시선이 쉽게 닿는 지면을 홍보의 장으로 활용해 작품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정보들을 최대한 펼쳐놓는 것이다.

3.2.2 작품 서사 프레임 설정

독자들은 도서 구매 시 모든 내용을 다 읽어본 후에 선택하기보다는 주변텍스트에 장치된 다양한 실마리를 토대로 ‘좋아 보이는 책’을 집어 든다. 이렇듯 주변텍스트에는 작품의 주제를 ‘미리 보기’할 수 있는 주요 대목이나 내용, 배경 정보들이 압축적으로 담기는데, 작품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내세울지는 주로 출판사가 기획한다. 따라서 주변텍스트를 관통하는 지배적 서사를 짚어보면 해당 출판사가 주목하는 관전 포인트와 작품 해석관을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독자는 출판사가 제시한 해석의 틀을 따라 작품에 진입하게 된다.

ST의 주변텍스트는 작품의 주제와 창작 의도, 서사 방식, 역사 증언 소설이라는 장르적 정체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뒤표지에는 신형철 문학평론가의 작품 설명을 덧붙여 독자들이 작가의 창작 취지와 제목의 함의를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작가가 소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강은 하게 만든다. ‘5월 광주’에 이어 ‘제주 4.3’에도 한강의 문장을 통해서만 표현될 수 있는 영역이 있었다고 믿게 된다. 학살 이후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한 생존자의 길고 고요한 투쟁의 서사가 있다. 공간적으로는 제주에서 경산에 이르고, 시간적으로는 반세기를 넘긴다. 폭

력에 훼손되고 공포에 짓눌려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다. 작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딸의 눈과 입을 통해 전해진다. 폭력은 육체의 절멸을 기도하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는 있다.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당 작품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뤘던 전작에 이어 오랜 시간 진실이 은폐되었던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채택함으로써 역사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하고자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작품의 서사가 4.3 당시 시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실존적 고통을 전달하고 공적 애도의 정당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몰입하고 있음이 예고된다. 더불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에 인간이 끝까지 ‘기억’한다면 육체가 없어도 죽음을 살아있게 할 수 있다는 작가의 확고한 믿음이 반영되었음을 암시한다.

한편 대만어와 중국어 번역서에 제시된 주변텍스트들은 역사적 폭력에 지뫼힌 무고한 희생자들의 고통을 다룬 작품임을 한목소리로 피력하지만 서술 방식과 초점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이를 드러낸다.

3.2.2.1 사건 명칭의 명시화 유무

우선 가장 명확하게 갈리는 지점은 한국의 특수한 역사 맥락에서 발생한 ‘4.3 사건’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차용하여 명시화하는지 여부다. 제주 4.3 평화재단(2003, p. 536)의 정의에 따르면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 서북청년단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속 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만의 TTT는 ‘4.3 사건’이라는 명칭을 차용해 전면에 활성화하는 반면, 중국의 CTT에서는 해당 사건의 명칭을 그대로 명명하지 않고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례로 뒤표지에 제시된 작품 줄거리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두 버전의 내용이 동일하나 CTT에서는 구체적인 사건명이 언급된 문장을 누락시켰다.

중국의 출판사가 대만 출간본을 기반으로 대륙에서 재출간하는 과정에서 대만 번역서 상의 작품 줄거리를 그대로 채택했으나 사건명이 노출된 부분은 지워서 내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1) 뒤표지—【줄거리】

TTT:...冬季的某一天, 因意外住院的仁善, 請求慶荷立即前往濟州的家裡照顧她的小鳥。慶荷在暴風雪中歷經千辛萬苦, 終於到達仁善的家, 她在那裡看到了仁善的家族史, **那是七十多年前在濟州發生的平民大屠殺: 濟州四三事件**。仁善的父親因失去全家人而悲痛欲絕, 但還得在監獄裡度過十五年; 她的母親則同時失去父母和妹妹, 連哥哥也生死未卜, 只能和姐姐兩個人相依為命...(겨울의 어느 날,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인선은 경하에게 제주 집으로 내려가서 새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경하는 눈보라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인선의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한다. **그것은 70여 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민간인 대학살, 즉 제주 4·3 사건이었다**. 인선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잃은 참담한 고통 속에서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어머니는 부모와 여동생을 모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지내야 했다...)

CTT:...冬季的某一天, 因意外住院的仁善, 請求慶荷立即前往濟州的家裡照顧她的小鳥。慶荷在暴風雪中歷經千辛萬苦, 終於到達仁善的家, 她在那裡看到了仁善的家族史。[Ø] 仁善的父親因失去全家人而悲痛欲絕, 但還得在監獄裡度過十五年; 她的母親則同時失去父母和妹妹, 連哥哥也生死未卜, 只能和姐姐兩個人相依為命...(겨울의 어느 날, 뜻밖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인선은 경하에게 제주 집으로 내려가서 새를 돌봐달라고 부탁한다. 경하는 눈보라 속에서 천신만고 끝에 인선의 집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인선의 가족사를 마주한다。[Ø] 인선의 아버지는 온 가족을 잃은 참담한 고통 속에서 15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고, 어머니는 부모와 여동생을 모두 잃고 오빠마저 생사를 알 수 없어서 언니와 단둘이 의지하며 지내야 했다...)

CTT가 TTT에 실린 대만 평론가의 작품 해설 일부를 발췌 인용한 부분에서도 유사한 흔적이 관찰된다. 사례 2)를 보면 해당 단락에서 4.3 사건이 지칭된 부분은 제거한 후 게시했다.

사례 2) 뒤표지—【대만 평론가의 작품 해설 일부 인용】

TTT: 韓江在本書《永不告別》再度以「濟州四三事件」國家暴力為主題，文中投射自我，虛實交錯。即便描寫熾熱悲劇，充滿哲思的文字始終冷冽、靜謐，如帶血的冰，卻也因此讓人看清血跡穿透擴散的痕跡。
(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다시 한번 '제주 4·3 사건'이라는 국가 폭력을 주제 삼아 글 속에 자아를 투영하고 허구와 사실을 넘나든다.)

CTT: 韩江在本书《不做告别》再度以國家暴力為主題，文中投射自我，虛實交錯。(한강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다시 한번 국가 폭력을 주제 삼아 글 속에 자아를 투영하고 허구와 사실을 넘나든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CTT는 작품성을 입증하기 위한 한국 현지의 공인된 평가들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사건명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양상이 포착된다. 기존 한국어 원문에 사건이 언급되어 있더라도 번역 과정에서는 최대한 배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사례 3) CTT 뒤표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사 인용】

ST: 제주 4.3을 앞두고 한강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었습니다. 가슴 속에 오래오래 묻어두었다가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주는 듯한 이야기를 들으며 4.3의 상실과 아픔을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강 특유의 몽환적이고 은유적이며 섬세한 묘사가 더욱 큰 감동을 줍니다...

CTT: [∅] 我读了韩江作家的长篇小说《不做告别》后久久不能释怀。聆听真心传达的故事，深深体会到了事件的失落与痛苦。韩江特有的细腻描写，如梦似幻，饱含隐喻，令人感动不已... ([∅]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고 오랫동안 마음에 묻어 놓았습니다. 진심으로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건의 상실감과 고통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 특유의 섬세하고 몽환적이며 은유로 가득한 묘사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사례 4) 띠지 —【대산문학상 심사평 인용】

ST: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광주와 제주 4·3을 잊고 뒤섞이며 지금 이곳의 삶에 내재하는 그 선혈의 시간을 온몸으로 애도하고 '작별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CTT: 《不做告別》將光州與濟州相連交融，深情悼念那段埋藏於現今生活之下的血色歲月，表達了永不告別的堅定決心。(『작별하지 않는다』는 광주와 제주를 잇고 뒤섞이며 지금 이곳의 삶에 묻힌 찰나의 세월을 깊이 애도하며 영원히 ‘작별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준다.)

사례 3), 사례 4)를 보면 문제인 전대통령의 추천사와 대산 문학상 심사평에 ‘4.3 사건’이라는 용어가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떼어내고 ‘사건’이나 ‘제주’와 같이 모호하고 평평한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 출판사는 ‘4.3 사건’이라는 공식 명칭을 굳이 가시화하지 않는다. 국가 폭력에 의해 제주의 많은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된 사건이 소설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축소된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는 타국에서 벌어진 낯선 사건의 명칭을 주입하기보다 독자들이 집단의 폭력성에 무너진 약자들의 상처를 보듬고자 하는 원작의 본질에 몰입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3.2.2.2 역사 사건에 대한 근접화 정도 차이

작품 속 배경인 4.3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도 판이하다. TTT가 4.3 사건을 전면에서 드러내며 밀착적으로 들여다보려 하는 반면, CTT는 원거리 관찰 시점에서 서사의 배경으로만 다룬다. 가령 이야기의 중심축을 이루는 4.3 사건에 대해 부가 설명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TTT의 경우 대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후 맥락까지 상세하게 언급한다.

사례 4)

① TTT — 【띠지에 실린 설명】

濟州四三事件指的是1948年4月3日至1954年9月21日，濟州島民衆與軍警對抗的血腥鎮壓事件。包含老弱婦孺在內，死亡人數大約有三萬。因為與台灣二二八事件時空與背景類似，常被拿來相提併論。(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8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민과 군경의 충돌로 인한 유혈 진압 사건을 일컫는다. 노약자, 부녀자들을 포함해 사망인 수가 약 3만 명에 이른다. 대만의 2.28 사건과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유사해서 함

께 거론될 때가 많다.)

② TTT — 【내지의 대만 평론가 작품 해설에 실린 설명】

坐落南韓國境之南，現今被視作度假勝地的濟州島，曾經是獨裁政治暴力下的禁地。相較一九八〇年影響其後韓國民主化的光州事件，一九四〇年代的濟州四三事件對於臺灣人而言可能較為陌生。起源於一九四七年的警民衝突誤殺事件，濟州民心激起反警情結，也為日後埋下未爆彈。一九四八年大韓民國（南韓）建立，隔著北緯三十八度線和彼端的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北韓）對峙。時任總統的李承晚頒布戒嚴令，以肅清共產份子為名對濟州市民進行無差別血腥鎮壓。當時規定，凡在距離海岸線五公里外的山區被發現者，皆格殺勿論。如此焦土化的屠殺共持續超過七年，最終約有三萬人死亡——該數字是當時濟州人口的十分之一。由一場警民衝突導火，失控引發至全島屠殺，聽來是否有些熟悉？濟州四三與臺灣的二二八事件巧合般相像，那場發生在濟州三月一日的誤殺事件，即是同年二二八事件爆發後一天。同為孤懸在外的島嶼，臺灣與濟州島在白色恐怖年代所經歷的歷史軌跡極其相似。（한국 남단에 위치하며 현재 휴양지로 잘 알려진 제주도는 한때 독재정치 폭력하의 금지 구역이었다. 1980년 한국 민주화에 영향을 미친 광주 사건에 비해 1940년대 제주 4.3 사건은 대만인들에게 상대적으로 생소하다. 1947년 민간을 향한 경찰의 발포 사건으로 제주 민심에 경찰에 대한 반감과 불신이 쌓였고 이후 사건의 도화선이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남한)이 수립되었고, 북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치 상태에 있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공산당원 숙청을 명분으로 제주도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단행했다. 당시 규정에 따라,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발견된 사람은 모두 사살되었다. 이러한 초도화 학살은 7년 이상 지속하였고, 당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민간인의 충돌로 촉발되어 섬 전체를 휩쓸어간 대규모 학살, 웬지 익숙하지 않은가? 제주 4.3 사건은 대만의 2.28 사건과 절묘하게 닮았다. 제주 4.3 사건의 발단이 된 3월 1일 경찰의 민간인 발포 사건은 같은 해 발생한 2.28 사건의 바로 다음 날 벌어졌다.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유사성을 지닌 대만과 제주도가 백색 공포 시대에 겪은 역사적 궤적은 매우 흡사하다.)

TTT의 주변텍스트들은 대만 독자에게 생소할 제주 4.3 사건의 배경과 진상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묘사 과정에 ‘민중과 군경 간 대립(民衆与军警对抗)’; ‘경찰의 발포 사건(誤殺事件)’; ‘공산당 숙청 명목(以肅清共產份

子為名), ‘무차별 유혈 진압(無差別血腥鎮壓)’, ‘초토화 학살(焦土化的屠殺)’ 등 가해의 주체와 사태의 심각성을 명시화하는 표현들을 가감 없이 동원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서 발생했던 2.28 사건과의 유사성을 찾으며 독자들의 감정 이입과 동질감 형성을 적극 유도하는 서사로까지 확장한다. 2.28 사건은 1947년 2월 28일 국민당 독재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무장 군인들이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대량 학살한 사건이며, 이를 발단으로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기 전까지 국민당의 독재와 정치적 억압 하에서 이른바 ‘백색 공포 시대’가 이어졌다. 이는 제주 4.3 사건을 촉발했던 1947년 3.1절 발포 사건과 시기적으로 겹칠 뿐만 아니라 ‘섬’이라는 고립된 지정학적 위치, 정치 이데올로기가 개입된 국가 폭력 사건이라는 상황적 맥락 측면에서도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동일한 역사적 아픔을 지닌 독자의 입장에서 작품 속 등장인물의 감정과 행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CTT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거나 주관적 해석을 더하지 않는다. 전술했던 사건 명칭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과도 맞물리는 현상이다. 다만 2024년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출판사가 온라인 도서 플랫폼에 작품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게시하였는데, 이때 ‘제주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간략한 설명을 덧붙였다. 도서의 지면상에 직접 제시된 문구는 아니지만 두 출판사의 서술 방식 차이 비교를 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5)

CTT: 【중국 온라인서점 플랫폼에 게시된 설명】³⁾

济州岛大屠杀, 1948年4月3日发生在韩国济州岛的民众抗争事件, 是韩国现代史上人命受害惨重仅次于朝鲜战争的悲剧性事件, 有传闻称此次大屠杀后济州全岛28万人仅余3万人⁴⁾。基于各种原因, 此事件在韩国并

3) 본고의 분석 대상은 도서 내부공간에 위치한 주변텍스트들이지만 대만과 중국 출판사의 관점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비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온라인서점 사이트 ‘당당망(當當網)’에 게시된 ‘출판사, 편집자 서평’을 추가로 인용하였다.

4) 실제로는 당시 피해자 규모가 약 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여기서 ‘3만 명만 남

不允许被广泛讨论, 因此不为一般民众熟知, 即便有一些资料给出的也都是官方数据。(제주도 대학살은 1948년 4월 3일 한국 제주도에서 발생한 민중 항쟁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컸던 비극적인 사건이다. 이 대학살 이후 제주 전체 인구 28만 명 중 3만 명이 남았다는 해석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서 공론화되지 못해 일반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일부 자료에 제시된 내용도 관변 단체에서 집계한 수치다.)

사례 5)의 설명은 TTT에서 사건의 가해 측, 정부 당국의 독재와 폭력성, 정치적 이념 갈등, 공권력 대 서민의 충돌 등 관련 정황들을 포괄적으로 제공한 것과는 달리 사건의 발생 시점과 피해 상황에만 초점을 맞춰 결과론적인 사실을 단편적으로 제공하는 데 그친다. 해당 사건을 ‘민중항쟁사건’으로 규정하고, 가해 주체나 배후의 정치적 배경을 드러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며, 중국 내 역사 사건들과의 접점을 찾는 시도도 하지 않는다. ‘4.3 사건’이라는 공식 명칭 대신 ‘제주대학살’이라고 지칭한 것도 ‘학살’이라는 사건 본질과 의미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제주’라는 지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한국이라는 특수한 사회에서 벌어졌던 국가 폭력 사건 중 하나라고 선을 긋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요컨대 TTT가 4.3 사건의 배경을 근접 거리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역사적 유사성과 정서적 공통분모를 탐색하며 독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다면, CTT는 제삼자 입장에서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사건 자체보다는 인물들이 겪은 서사에 더욱 몰두하는 양상이다.

3.2.2.3 여성 주체의 외현화 정도 차이

마지막으로 이야기 서술자이자 증언자인 ‘여성’ 주체에 대해 두 번역서가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가 다르다. 이 작품은 소설가 경하와 다큐멘터리 감독 인선이 4.3 사건의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는 인선 어머니의 삶과 그녀가 잃어버린 가족들을 잊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한 행적을 되짚는 형식을 취한다. 작가는 소설 속 화자, 서술 대상, 증언자 모두 여성으로 설정했다. 이 작품에서는 역사 속에 매몰되어 잊혔던 희생자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주체, 역사 비극의 현장을 목도한 증언들을 채록하여 기억으로 재건하는 주체,

왔다라고 표기한 것은 정보 기재 오류로 판단된다.

대물림되는 상처를 보듬어 ‘지극한 사랑’을 실천하는 주체가 모두 여성인 셈이다. 이에 대해 대만의 TTT는 ‘여성’ 화자들의 연대를 통해 아픈 역사의 기억을 현재로 끌어오는 원작의 서사적 특징을 놓치지 않고 짚어낸다.

사례 6) TTT: 【내지의 대만 평론가 작품 해설에 실린 설명】

本書不只將讀者帶回那年濟州島之春，在陽剛掛帥的歷史事件中，韓江用女性視角，為那些不被記錄的女性刻畫深度。《永不告別》以兩位女性好友——慶荷與仁善為主角，從仁善一場突如其來的斷指意外，連結至仁善母親的家族傷痛，進而揭露一場屠殺，是如何重擊那個年代下的人們。(이 책은 그 해 제주도의 봄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한강은 남성 중심의 역사 사건들 속에 파묻혀 미처 기록되지 못한 여성들에 대해 여성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그려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친구 사이인 두 여성 경하와 인선을 주인공으로 하며 인선의 갑작스러운 손가락 절단 사고에서 인선 어머니 가족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당시의 대규모 학살이 그 시대 사람들을 어떻게 덮쳤는지 파헤친다.)

TTT의 내지에 실린 작품 해설 중 사례 6)을 보면 남성 중심적이고 폭력적인 역사 속에서 무참히 희생되었으나 기억에서 밀려난 여성들을 후세대 여성의 시각으로 깊숙이 들여다보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CTT는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굳이 내세우지 않는다. 여성이 주체가 되는 개별적 서사를 초점화하기보다는 희생자 집단 전체에 대한 인류애적 애도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두 번역서의 표지 이미지에도 투영된다. 표지는 책의 첫인상이자 정체성이다. 정민영(2015, p. 42)에 의하면 표지 디자인은 구매 독자에게 책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 심리를 자극할 뿐 아니라 실제 독서 과정에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많은 공을 들이는 대상이다. 그렇기에 앞표지는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작가의 문학적 분위기가 시각적으로 함축된 공간이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한국어 원작 표지는 파란 하늘과 모래사장이 펼쳐진 바닷가 사이로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커다란 광목천이 가로놓여 있는 장면을 담았다. 이는 2018년 카네기 인터내셔널에서 선보인 한강 작가의 비디

오아트 ‘작별하지 않는다(I Do Not Bid Farewell)’ 영상에 등장하는 장면들 토대로 구성되었다고 한다⁵⁾. 당시 두 여성이 흰 천을 들고 학살터인 한라산의 숲에서 바닷가까지 걸어가는 퍼포먼스를 촬영했는데, 그때 작업한 스틸컷이 동명 소설의 표지로 쓰인 것이다. 무명실로 짠 광목천의 이미지는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을 향한 애도라는 상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인선이 떠올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시각화한 것이기도 하다. 이는 소설 후반부에 “커다란 광목천 가운데를 가윗날로 가르는 것처럼 엄마는 몸으로 바람을 가르면서 나아가고 있었어. 블라우스랑 헐렁한 바지가 부풀 대로 부풀어서, 그때 내 눈엔 엄마 몸이 거인처럼 커다랗게 보였어”라는 인선의 독백과도 맞닿는다.

표 4

한국 원서 및 대만, 중국 번역서 앞표지 이미지

한국 『작별하지 않는다』	대만 『永不告別』	중국 『不做告別』
		

한국어 원작의 표지 이미지가 바닷가와 광목천의 조합으로 구성된 반면 중화권의 두 번역서는 어두운 색조의 바닷가 배경에 인물의 뒷모습 실루엣

5) 송경윤(2024)에 따르면 한강은 소설, 시, 비디오아트, 노래 등 여러 분야를 넘나드는 작가로 2018년 미국 카네기 미술관에서 열린 국제기획전 카네기 인터내셔널에 초대되어 비디오 아트 ‘작별하지 않는다’를 선보였다. 이 영상물에는 흰 천을 들고 눈 덮인 숲을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데, 이후 제주 4·3사건을 다룬 소설의 제목으로 채택되기도 했으며, 해당 소설의 표지 역시 당시 영상 속 장면이 착안해 디자인되었다.

을 추가적으로 삽입하고 있다.⁶⁾ 이 소설의 도입부는 눈 오는 별판, 산등성이에 묘비처럼 심겨 있는 수천 그루의 검은 통나무, 묘지를 향해 밀려오는 바닷물 등 주인공 경하가 꾸었던 꿈속 장면들을 묘사하며 시작된다. 기본적으로 두 역서의 표지 배경은 이러한 꿈속 이미지들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면상으로 표출된 시각적 형상과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TTT의 표지는 좌우로 늘어선 검은 통나무들이 바닷물에 잠겨 있고, 평평 쏟아지는 눈을 맞으며 반대편으로 멀어져가는 여인의 검은 실루엣을 화면의 중심점에 배치했다. 고통과 그리움 속에 버티고 역사의 비극적 순간과 희생된 가족들을 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강인한 여성들을 대변하는 듯하다. 반면 CTT의 경우 총알이 빗발치며 하얀 포말을 일으키는 밤바다 사이를 헤치며 도망가는 한 소년의 은빛 실루엣을 담았다.⁷⁾ 유해조차 찾지 못해 인신 어머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지낸 오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미지는 해석과 이념적으로 채색된 시각들angles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던 반 루인(Van Leeuwen, 2008, 이원표, 2015, p. 63에서 인용됨)의 주장처럼 표지에 표상된 이미지는 작품 해석을 둘러싼 두 출판사의 시각차를 보여준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TTT는 애도의 주체인 여성을, CTT는 애도의 대상인 소년에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다른 주변텍스트들에서 CTT에 비해 TTT가 ‘여성’이라는 키워드 가시화에 보다 적극적이었던 현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다.

3.2.3 문화 중개 및 조절

본문 텍스트 중 문화적 차이나 정보의 편차로 인해 독자의 이해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주를 활용해 부가 설명이 더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역주도 주변텍스트 유형에 해당하는데, 번역가 혹은 출판 주체

6) 한국어 원작과 대만어, 중국어 번역서 모두 표지에 바다의 이미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에서 ‘바다’가 지니는 공간적 함의가 특별하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가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기도 하고, 주인공의 꿈속에도 산간 무덤들 사이로 밀려들어 오는 바닷물이 등장하며, 총살 현장을 문틈으로 숨죽여 지켜보았다는 생존자 할머니의 증언 속 학살 터도 바닷가였다.

7) 중국어 번역서의 출판사평을 보면 총알을 피해 달아나는 소년 이미지에 은박 후가공 처리를 함으로써 기억 속 소년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가 독자들이 본문을 읽는 동안 궁금해할 만한 개념을 미리 선별한 다음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으로 풀어쓰는 일종의 중재 수단이다. 따라서 해당 개념을 독자들에게 어떻게 인지시키고자 하는지에 대한 번역가와 출판사의 견해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두 중화권 번역서는 동일한 번역가의 번역 결과물을 바탕으로 출간하였다고는 하지만 역주를 추가한 어휘 유형이 다르거나 같은 어휘라도 설명 방식이 다른 경우들이 상당수 발견된다. 이는 결국 번역본을 교정, 가공하는 과정에서 출판사가 역주 편성에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방증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북청년단’에 대한 두 번역서의 역주를 들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인 제주 4·3 사건은 광복 후 한국 내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 국가 공권력과 민간의 갈등, 미군정 문제 등 혼란하고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 벌어진 사건이다. 당시 4·3 사건은 ‘빨갱이’, ‘폭도’ 등 반동 세력의 폭동으로 규정되면서 강력한 적색 이데올로기 프레임이 씌워졌으며, 제주는 국가에 의해 반군 세력의 주둔지로 간주되어 계엄령이 선포되었다(송혜림, 2019, p. 253). ‘서북청년단’은 계엄령이 선포된 제주에서 군정 세력을 도와 ‘초토화 작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우익 단체다.

사례 7)

ST: 서청—서북청년단—사람들이 잔인해그네, 내내 같이 땡기던 민보단원들도 수틀리민 죽여분다는 소문이 이시난 나는 걱정되었주께.(p. 228)

TTT: 西青—就是西北青年團*—的人很殘忍, 聽說就算是一直一起行動的民保團(欄)成員, 只要是看不順眼的也會被殺掉, 這讓我很擔心。(서청-서북청년단-사람들이 잔인해서 줄곧 같이 다니던 민보단원들도 수틀리면 죽여버린다는 소문이 들리길래 나는 걱정되었지.)(p. 228)

【역주】 *北韓社會改革當時, 逃到南韓境內的北韓各道青年團體, 於一九四六年十一月三十日在首爾成立的極右反共團體, 正式名稱是‘西北青年會’。以當時日本殖民時期失去經濟、政治既有權力而南下的地主家庭出身的青年為主軸組建。西北青年團(欄)幫助警察遂行查找左翼份子等任務, 每當左、右翼發生衝突時, 都起到右翼陣營先鋒的作用。(북한 사회개혁 당시 남한으로 탈출한 북한 각 도 청년단체들이 1946년 11월 30일 서울에서 출범한 극우 반공단체로 정식 명칭은 ‘서북청년회’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경제적·정치

적 기존 권력을 잃고 남하한 지주 집안 출신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서북청년단은 경찰이 좌익 색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 좌·우익이 충돌할 때마다 우익 진영의 선봉 역할을 했다.)

CTT: **西青一就是西北青年团***—的人很残忍, 听说就算是一直一起行动的民保团成员, 只要看不顺眼的也会被杀掉, 者让我很担心。

【역주】 * [∅] 于一九四六年十一月三十日在首尔成立的极右反共团体, 正式名称是‘西北青年会’。以当时日本殖民时期失去经济、政治既有权力而南下的地主家庭出身的青年为主轴组建。西北青年团帮助警察遂行查找左翼份子等任务, 每当左、右翼发生冲突时, 都起到右翼阵营先锋的作用。([∅] 1946년 11월 30일 서울에서 출범한 극우 반공단체로 정식 명칭은 '서북청년회'다. 당시 일제강점기에 경제적·정치적 기존 권력을 잃고 남하한 지주 집안 출신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서북청년단은 경찰이 좌익 색출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도와 좌·우익이 충돌할 때마다 우익 진영의 선봉 역할을 했다.)

사례 7)에 언급된 ‘서북청년단’은 북한의 공산화로 월남한 청년들이 주축이 된 극우 성향 청년단체로 이승만 정부의 비호 아래 좌익 계열 조직들을 공격하고 보도연맹 학살 사건, 제주 4.3 사건 등 민간인 학살과 고문에 종사했던 조직이다. 이에 대한 TTT와 CTT의 역주를 살펴보면 기술 내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CTT는 TTT와 달리 북한에서 남하한 청년들이 조직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처럼 CTT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북한’, ‘공산당’, ‘6·25 전쟁’, ‘좌익’ 등과 관련된 어휘에 대해서는 직설적 언급을 최대한 자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정 어휘를 둘러싼 CTT의 보수적 접근은 다음 사례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사례 8)

ST: 우리 서방은 시국 때 피해 본 거 어서. **육이오 참전 용사**라, 전쟁 나간 죽을 고비 넘긴 게 전부라.(p. 227)

TTT:我丈夫在那時候沒有受到迫害, 因為他是**六·二五戰爭*參戰軍人**, 去戰場以後差點死掉。(우리 남편은 그 시국에 피해 본 건 없었어. 육이오 전쟁 참전 군인이라 전쟁터에 갔을 때 죽을 고비 넘긴 게 전부지.)(p. 227)

【역주】 *一九五〇年六月二十五日凌晨, 北韓軍隊突然進攻北緯三十八

度線以南，由此引發的戰爭，一般稱之為韓國戰爭。一九五三年七月二十七日日停戰，雙方確定了停戰線，停戰狀態一直持續到今天。(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북위 38도선 이남으로 기습 진격하면서 벌어진 전쟁을 보통 한국전쟁이라고 부른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하면서 양측은 휴전선을 확정했고, 휴전 상태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CTT:我丈夫在那时候没有受到迫害，因为他是**军人**，去战场以后差点儿**司**死掉。(우리 남편은 그 시국에 피해 본 건 없었어. **군인**이라서 전쟁터에 갔을 때 죽을 고비 넘긴 게 전부지.)(p. 193)

【역주】 없음

사례 9)

ST: 경북 지역 **보도연맹**원 1만여 명 / 대구형무소 1천5백 명 재소자 / 경산 코발트 광산 및 인근 가창골 / 학살지 유해 수습 발굴.(p. 257)

TTT: 慶北地區**保導聯盟***成員一萬餘人 / 大邱刑務所一千五百名囚犯 / 慶山鈷礦山及附近加倉穀 / 挖掘、處理被屠殺者的遺骸

【역주】 *‘國民保導聯盟’成立於一九四九年，是南韓政府為了徹底管束左翼份子而成立的全國性官方機構。以糧食為誘因鼓勵民衆登記自己為共產黨員，好對其實施再教育，大約有三十萬人登記為成員。韓戰爆發後，這些人被關在集中營，成為軍隊逃跑時的累贅，後來南韓總統李承晚下令處決保導聯盟成員，在未經審判的情況下，估計有十萬到二十萬，甚至更多人遭到屠殺。(1949년 결성된 국민보도연맹은 남한 정부가 좌익분자들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만든 전국적인 공식기구였다. 식량을 매개로 하여 대중이 자신을 공산당원으로 등록하도록 독려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며 약 30만 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이들은 수용소에 갇혀 군대가 도망갈 때 짐이 되었고, 이후 남한 대통령 이승만은 보도연맹 구성원을 처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 없이 약 10만에서 20만 명, 심지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CTT: 庆北地区**保導聯盟**成员一万余人 / 大邱刑務所一千五百名在押人员 / 庆山、鈷礦山及附近假仓谷 / 挖掘、处理被屠杀者的遺骸

【역주】 없음

사례 8)의 원문에 ‘육이오 참전 용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TTT는 ‘육이오 전쟁 참전 군인’이라고 옮기고 역주를 추가한 데 반해 CTT는 ‘육이

오 참전'이라는 수식어는 생략하고 '군인'이라고 일반화하며 별도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TTT에서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더해 원문의 '육이오 (6.25)'가 내포한 함의를 구체화함과 동시에 역주를 통해 해당 전쟁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38선 이남 기습 진격'이 발단이 되었음을 명시했다. 한편 CTT는 특정 사건을 연상시키는 고유명사를 떼어내고 '군인'이라는 신분만 남기는 전략을 취했다. 사례 9)의 '보도연맹'은 공산주의 정당인 남로당 약화와 좌익 세력의 전향 유도, 대국민 사상 통제를 목적으로 1949년 조직된 반공단체였다. 당시 경찰과 공무원들은 할당 인원 수를 채우기 위해 아무 관련 없는 민간인들도 다수 가입시켰다. 그러나 한국전쟁 발발 후 북한 인민군 점령지역에서 보도연맹 가입자들이 북측에 동조하는 것을 우려한 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검속(檢束)과 즉결 처분을 단행했다. 중화권 독자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이 용어에 대해서도 TTT는 상세한 각주로 이해를 돕는 반면 CTT에서는 더 이상 부연하지 않는다.

이처럼 CTT는 냉전 시대 이념 갈등을 환기하거나 '좌익', '반공', '북한군', '공산당' 등 정치적 성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용어들이 등장하면 일반화하고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⁸⁾ 이는 우선 중국의 출판사가 소설의 배경을 한국 사회 내부의 특수한 역사로 규정하여 중국과의 연관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지원군 병력을 파견해 북한을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공산당이 집권

8) 이러한 전략은 본문 텍스트 번역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다. '빨갱이'라는 어휘에 대한 번역 양상 차이를 보면 TTT에서는 '共產黨(공산당)'이라는 번역어를 썼지만 CTT에서는 '赤匪(적비)'로 일괄 조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에서 '빨갱이'는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중북주의자를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를 대만에서는 '공산당'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형태로 옮겼지만 중국어 번역에서는 중국 국민정부 시대에 공산당 산하에서 활동했던 유격대를 낮춰 부르던 용어인 '적비(赤匪)'로 대체했다. 한국어 원문 용어와 의미상으로 근접하기도 하고, 현재 중국 집권당의 명칭을 한국에서 지칭하는 '빨갱이'라는 용어에 대응시키는 전략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ST: 대신 빨갱이라 허명 질색을 해주게.(p. 229)

TTT: 但他一聽到共產黨三个字, 就覺得很厌恶。(p.229)

CTT: 但他一听到赤匪几个字, 就觉得很厌恶。(p.195)

하며 사회주의 이념과 체제를 고수함에 따라 출판물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품 속에서 4.3 사건이나 한국전쟁, 보도연맹 사건의 발단이자 사상적 갈등의 연원으로 등장하는 ‘북한’, ‘공산주의’ 등과 같은 단어들도 대부분 후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 국가 폭력의 배후에 냉전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이 들추거나 설명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또한 한국의 근현대사에 익숙하지 않을 중국 독자들의 독서 몰입도가 깨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도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전쟁(朝鮮戦争)’ 혹은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战争)’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육이오(6.25)’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독자들의 이해 용이성을 위해 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화한 표현이나 중국에서 선호하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다.

상기 사례가 대면하듯 번역서에는 생소한 개념을 상술하여 문화적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주변텍스트가 활용되기도 하는데, 어떤 어휘에 설명을 추가할지, 어떤 각도에서 기술할지는 책을 제작하는 출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도 TTT는 이야기 전개와 관련된 한국의 역사 사건들에 대해 발생 배경과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술함은 물론 정치색을 띤 어휘나 표현들도 거르지 않고 거침없이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냉전 시대 사회주의 국가들과 대립하며 반공 이데올로기가 팽배했던 공통된 역사 경험과 정서적 친밀감에서 기인한 것이다. 하지만 CTT는 TTT와 비교해 역주의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을뿐더러 역사 사건 관련 어휘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중국의 현재 정치 이념 혹은 역사관과 상충되거나 중국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취질 수 있는 요소들은 완화하는 경향이 짙었다.

5. 결론

번역서의 주변텍스트는 원작을 둘러싼 다양한 파생 정보들을 시각적으로 구조화하여 현지 독자층을 낯선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데, 작품에

진입하기 전 예고편 역할을 하며 작품 흡입력을 제고하고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 이러한 주변텍스트의 기획은 대개 도착어 출판사의 재량에 따른다. 출판사들은 책의 판매와 수익 창출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므로 언어, 기호, 이미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새로운 표지디자인을 설계하고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면 곳곳에 배치한다. 이때 주변텍스트의 구성 방식에는 도착어 사회의 분위기, 출판사 성향과 정체성, 도착어 출판업계의 통념 및 규제, 독자 반응 등이 반영된다. 같은 원작이어도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 등 각 문화권마다, 더 세부적으로는 각 나라마다 판이한 디자인의 번역서로 재탄생되는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 대만어판과 중국어판 주변텍스트의 경우 ‘정보 구성 및 배치’, ‘작품 서사 프레임 설정’, ‘문화 중개 및 조절’ 세 가지 측면에서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첫째, 정보의 구성과 배치 측면에서는 원작에 비해 번역서의 주변텍스트 정보 밀도가 확연히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현지 독자와 타국 작가 간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해설을 더한 결과이다. 표지와 띠지를 살펴보면 TTT가 작품의 문체와 주제, 한국에서의 수상 이력, 판매 순위 위주의 정보를 나열한 반면 CTT는 유명 인사의 추천사와 문학상 수상 당시 심사평 위주로 게재해 작품의 명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둘째, 두 번역서는 작품의 서사를 전달하고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사건 명칭의 명시화 유무 차이이다. TTT는 ‘4.3 사건’이라는 명칭을 걸러내지 않고 전경화하는 반면, CTT는 그대로 명명하지 않고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4.3 사건’을 부연 설명하는 대목에서도 TTT가 사건의 배경과 정황까지 근접 거리에서 상세히 기술하며 역사적 유사성과 정서적 공통분모를 탐색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반해 CTT는 제삼자 입장에서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TTT는 표지나 해설 등을 통해 작품에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외현화하며 의미를 부여하지만 CTT는 ‘여성’을 강조하기보다 애도의 대상인 희생자에 주목하는 입장을 보인다.

셋째, 문화적 간극을 중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CTT에 비해 TTT가 역

주를 적극 활용해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는 편이다. 특히 한국의 역사 사건 관련 용어를 설명할 때 TTT는 정치색을 띤 어휘나 표현들도 과감하게 사용하는 반면, CTT는 중국의 정치 이념 혹은 역사관과 상충되거나 중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걸러내거나 희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문학 작품이 번역되어 최종 상품의 형태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본텍스트 주변으로 겹겹이 더해지는 출판사의 메타적 담론에 초점을 맞췄다. 주변텍스트야말로 원작을 대하는 출판사의 방향성이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요소라고 상정하고, 이 공간이 도착어 문화권의 수용 맥락에 따라 다르게 편성된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본고에서 도출한 결과들은 하나의 작품을 대상으로 중화권 번역서들에 국한하여 진행된 소규모 연구에 기반한 것이므로 보편적인 경향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한계는 추후 해외에서 번역된 국내 역사 증언 소설 다수작을 선정해 여러 문화권에서 주변텍스트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다각적으로 비교하고, 주변텍스트와 더불어 외부 공간에 위치한 바깥텍스트로까지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한강. (2021). *작별하지 않는다*. 문학동네.
 盧鴻金. (역). (2023). *永不告別. 漫遊者文化*
 卢鸿金. (역). (2023). *不做告別. 九州出版社*

<2차 자료>

- 김순미. (2013). 곁텍스트를 통한 출판사의 문학번역 전략 홍보: 『위대한 캐츠비』 번역방법 논란을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1(3), 5-27.
 김순영. (2019). 추리소설에서 곁텍스트의 역할: 엘리리 퀴의 『X의 비극』 영한번역본을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0(3), 233-245.

- 김영찬. (2024). 불가능한 장소에서, 고통의 미메시스와 글쓰기의 드라마 —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94, 79-104.
- 김정현, 김준교. (2015). 국내외 북커버 디자인의 시각적 특성 비교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15(3), 345-354.
- 김정현, 서혜옥. (2015). 국내 북 커버 디자인에서 띠지의 선호도 및 실증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4), 125-136.
- 리우산산. (2024). 수용환경에 기반한 텍스트 변용으로서의 ‘여백’ 활용과 번역자의 개입 양상 연구 — 중국대륙과 대만(지역) 번역본 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마승혜. (2019). 한국문학 세계화를 위한 주변텍스트 활용 방안 모색 — 번역서 및 비번역서 사례 비교 연구. *통번역교육연구*, 17(1), 161-183.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결텍스트 —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송경윤. (2024. 10. 15.). ‘노벨문학상 신드롬’에...한강 소설 영감받은 미술 작품 주목.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culture/11140653>
- 송혜림. (2019). 감정의 재의미화와 기억의 해방 — 4·3 피해자 증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70(2), 251-278.
- 엄인영, 김병진. (2016). 파라텍스트 개념 확장을 통한 북 디자인의 발전 가능성 연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55, 68-78.
- 오태호. (2022). 역사적 비극을 서사화하는 ‘애도로서의 치유’ 지향 소설 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74, 7-41.
- 윤미선. (2020). 영상 번역의 결텍스트 — 한국 영화 번역본의 오프닝 크레딧 분석. *번역학연구*, 21(2), 165-192.
- 이원표. (2015). 한국 정치담화의 언어학적 분석:비평적 담화분석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이지영. (2016). 문학번역의 결텍스트 리프레이밍: 소설 『허삼관매혈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201-232.
- 정민영. (2015). 편집자를 위한 북디자인: 디자이너와 소통하기 어려운 편집자에게. *아트북스*.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

- 보고서. 제주 4.3평화재단. https://jeju43peace.or.kr/kor/sub01_01_01.do
- 종소함, 이해원. (2019). 중국 북커버 띠지 디자인의 선호도 분석에 관한 융합 연구 —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37(5), 371-386.
- 지영래, 박선희. (2010). 번역본에서의 결텍스트의 위상: 마담 보바리의 번역본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1(3), 247-276.
- 毛文俊, 付明端, 薛玉凤. (2023). 鲁迅小说英译中的赞助权力话语及其副文本纵 [Power discourse and paratext manipulation of patronage in English translations of Lu Xun's novels]. 浙江理工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23(5), 549-558.
- 邵璐, 周以. (2022). 翻译中的副文本策略和读者接受—以余华作品在美国的译介为例 [Paratext strategies and reader reception in translation: Exemplified by dissemination of Yu Hua's works in America]. 外国语文, 38(1), 10-19.
- 宋义国. 2024. 场域联动与资本协作: 葛浩文翻译作品海外译介出版与传播模式启示 [Field linkage and capital collaboration: Inspiration from the overseas translation, publication and communication mode of Goldblatt's translated works]. 出版发行研究, 2024(1), 91-98.
- 周子淳. (2022). 副文本与文学译介—以英美翻译出版的中国现当代文学译作为例 [Paratexts in literary translation and circulation: Exemplified by translations of modern and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translated and published in Britain and America]. 浙江外国语学院学报, 2022(5), 84-92.
- 王海珠, 王洪涛. (2023). 人民文学出版社翻译传播网络建构过程及价值 [Process and value of people's literature publishing house's translation circulation network]. 出版科学, 31(6), 60-65.
- Batchelor, K.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Routledge.
- Genette, G. (1997). *Paratexts: Thresholds of interpretation (No. 2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ovala, U. (1996). Translations, paratextual mediation, and ideological closure, *Target*, 8(1), 119-147.
- McRae, E. (2012). The role of translators' prefaces to contemporary literary

translations into English: An empirical study. In A. G. Bardají & O. Pilar & S. R. Esteva (Eds.), *Translation peripheries: Paratextual elements in translation* (pp. 63-82). Peter Lang.

Munday, J., Ramos Pinto, S., & Blakesley, J. (2023). 번역학 입문: 이론과 적용 (남원준, 이형진, 공역).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Original work published 2022)

A comparison of peritexts in the Chinese and Taiwanese translations of Korean Novel “Jakbyeol haji anneunda” (We Do Not Part)

Kyoung-yi Kang (jiongli1011@naver.com)

Graduate School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Peritext refers to the elements surrounding a book that greet the readers as the first threshold to the work and invite them to engage with it. In both original and translated works, peritext is largely shaped by publishers, who reconstruct and redesign these elements to ensure effective distribution and favorable reception in the target culture’s publishing field. In this sense, peritext represents a textual space subject to extensive editorial mediation. This study explores how publishers’ voices are reflected in the peritext of translated books, focusing on the Chinese and Taiwanese translations of “Jakbyeol haji anneunda” (We Do Not Part), a novel by Han Kang; the first Korean and Asian female writer to receive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By analyzing these translations, the study identifies the publishers’ objectives and the strategies they used to adapt peritextual elements to the target culture. Although both versions share the same translator, they were published by different publishers, resulting in notable discrepancies in peritextual construction. These differences manifest in various aspects such as content and layout, interpretive framing, and the mediation of culture-specific items.

Keywords: Peritext; paratext; publisher; ideology; literary translation

키워드: 주변텍스트, 곁텍스트, 출판사, 이데올로기, 문학번역

강경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중과 강사

jiongli1011@naver.com

논문 투고일: 2025년 2월 14일

1차 심사 완료일: 2025년 3월 2일

2차 심사 완료일: 2025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25년 3월 15일